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1. 27.(금)

식약처, 국제 식품위생 기준 논의에서 우리나라 의견 적극 제시

- 김 등 해조류에 불필요 규제 부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
- 영유아용 분말 조제식품 위생관리 지침 개정 논의에도 참여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**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**(CODEX)* **식품위생분과 회의**(11.15.~11.20., 미국 스코츠데일)에 참석해 수산물 중 비브리오균 관리 지침 등 **국제 식품위생 기준**에 **우리나라 의견**을 **적극 제시**했다고 밝혔다.

*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 : 1962년 FAO·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,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·관리함

이번 회의에는 60여 개 회원국과 세계보건기구(WHO),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 등 관계자 230여 명이 참석했으며, **▲식품 중 바이러스 관리 지침 개정 ▲수산물 중 병원성 비브리오균 관리 지침 개정 ▲신규 제안 작업의 우선순위 논의**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.

특히 우리나라는 수산물 중 비브리오균 관리지침 개정과 관련해 **김 등 해조류**를 **섭취**해 **비브리오균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우 드문 점**을 **고려**하여, **해조류**를 **제외**하는 기존 **'수산물(Seafood)'의 정의**를 **유지**하고 해당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할 것을 **제안**했다. 이는 **해조류까지 비브리오균 관리 대상에 포함**되는 등 **불필요한 규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**으로, 해조류가 제외된 해당 지침은 **2027년** 개최 예정인 **제50차 CODEX 총회**에서 **최종 채택**될 **예정**이다.

또한 우리나라는 **공중보건**과 **국제무역**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향후 제57차 회의에서 논의할 **신규 작업**의 **우선순위**를 **검토**했으며, 우리나라를

비롯한 여러 회원국이 지지한 **‘영유아용 분말 조제식품 위생관리 지침’ 개정**을 위한 **작업반**에도 **참여**하기로 했다. 이를 통해 **영유아 등 취약계층**의 **식품 안전 확보**를 위한 **국제적 논의**에도 **힘을 보탤 예정**이다.

식약처 관계자는 “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식품위생 관리 경험과 입장을 **국제 기준 논의**에 **반영**하고, **국내 식품산업**에 **불필요한 규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**했다”며 “앞으로도 **과학적 근거**에 **기반**한 **국제 식품위생 기준 마련**에 **적극 참여**하겠다”고 밝혔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CODEX 등 **국제기구**와 **긴밀히 협력**해 국제 식품안전 **기준 논의**에 **주도적으로 참여**하고,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역량과 국제적 위상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.

회의 관련 자료는 CODEX 식품위생분과 누리집*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결과보고서는 향후 식품안전나라**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.

* 코덱스 식품위생분과 누리집 https://codex.fao.org/meetings/d/ccfh-56-1	
** 식품안전나라> 코덱스 분과별 결과보고서	

담당 부서	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	책임자	과 장	장문익 (043-719-2411)
		담당자	연구관	이은미 (043-719-2415)
협조 부서	식품위해평가부 미생물과	책임자	과 장	주인선 (043-719-4301)
		담당자	연구관	김용훈 (043-719-430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CODEX 회의 사진



